

# 전덕역

최근 수정 시각 2025-12-15 19:53:15

분류: 동구(효빈)의 철도역 | 2016년 개업한 철도역 | 효빈 도시철도 6호선 | 빈효선 광역전철 | 나무위키 철도 프로젝트

- [1. 개요](#)
- [2. 역 정보](#)
- [3. 역 주변 정보](#)
- [3.1. 출구 정보](#)
- [4. 일평균 이용객](#)
- [5. 승강장](#)
- [6. 연계 교통](#)
- [7. 기타](#)

전덕역	
(6)	빈효
마잡 방면 덕현 ← 0.99 km	고송나루 방면 전천중앙 0.95 km →
효빈항 방면 효빈 ← 1.7 km	고남 방면 하성천 1.8 km →
역명 표기	
6 호선	전덕
빈효선 광역전철	Jeondeok 前德/ 前德/ ソンドク
주소	
효빈광역시 동구 덕현동 11-22 지하	
관리역	
덕현관리역	
운영 기관	
6 호선	효빈교통공사
빈효선 광역전철	한국철도공사
개업일	
6 호선	2021년 5월 31일
빈효선 광역전철	2017년 5월 2일
역사 구조	

지하 2 층 (6 호선)

지상 2 층(빈효선)

### 승강장 구조

복선 상대식 승강장 (6 호선)

복선 섬식 승강장 (빈효선)

## 1. 개요

효빈 도시철도 6호선 607번, 빈효선 광역전철 B10번. 효빈광역시 동구 덕현동 11-22 지하 소재

## 2. 역 정보

6호선의 경우 원래는 계획에 없던 역이었으나, 빈효선과의 연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2018년에 착공해서 2021년에 개통하였다<sup>1</sup>

## 3. 역 주변 정보

### 3.1. 출구 정보

#### 전덕역 출구 정보

-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전덕역 아파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| 결나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| 산군중, 덕현 3 동행정복지센터, 전덕초, 전덕중, 천풍공원 |
| 4 | 삼택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4. 일평균 이용객

연도

6

빈효

총합

비고

<sup>1</sup> 참고로 이건 5호선의 경우에도 같은 사례가 추가될 예정으로, 덕현중앙역이 그 예시이다. 참고로 덕현중앙역은 무려 3개 노선 환승역이 될 예정인 것은 안비밀.

2020년		9,873 명	9,873 명
2021년	12,060 명	9,983 명	22,043 명
2022년	14,024 명	11,609 명	25,633 명
2023년	14,270 명	11,813 명	26,083 명
2024년	14,521 명	12,021 명	26,542 명

## 5. 승강장



## 6. 연계 교통

방향 구분	정류소명	노선번호
순방향	전덕	1, 37, 172, 2000, 6666

방향 구분	정류소명	노선번호
역 방향	전덕	01-1, 73, 712, 721, 2000R, 6666R

## 7. 기타

- '고난의 동지'가 만난 눈물의 환승역: 전덕역은 효빈 도시철도 6호선과 빈효선 광역전철이 만나는 환승역이지만, 두 노선 모두 윤대환 전 시장 시절(2006년~)의 교통 정책 혼선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흐역사를 공유하고 있다.
- 6호선: 당시 '전차 폐지 및 버스 중심' 공약으로 인해 타당성 조사가 파기되는 등 백지화 위기를 겪었다.
- 빈효선: 광역철도 사업 축소 및 예산 집행 보류로 인해 개통이 하염없이 미뤄졌다.
- 이후 박현만 시장 취임 후 두 사업이 기적적으로 부활하여 각각 2021년(6호선)과 2017년(빈효선)에 개통되었다. 때문에 철도 동호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전덕역은 단순한 환승역을 넘어 \*\*\* 잃어버린 10년을 딛고 일어선 효빈 교통 정상화의 상징\*\*\*과도 같은 곳이다.

2021년에 개통한 이유는, 원래 개통계획에 없다가 빈효선과 연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중간에 계획에 추가되어 2018년에 공사를 시작했던 역이기 때문이다.

- 지하와 지상의 극적인 만남: 전덕역의 가장 큰 특징은 지하 깊숙이 위치한 6호선과 지상(고가)을 달리는 빈효선의 수직적 교차다.
- 6호선 (지하): 효빈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중형 전동차가 지하 터널을 통해 들어온다.
- 빈효선 (지상): 코레일(KORAIL)이 운영하는 대형 전동차가 탁 트인 지상 선로를 통해 시원하게 진입한다.
- 이 때문에 환승 통로의 수직 이동 거리가 꽤 긴 편이다.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면 어두운 터널 뷰에서 갑자기 덕현동의 아파트 숲과 하늘이 펼쳐지는 극적인 시각적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.
- 운영 주체의 차이와 '100원의 장벽': 두 노선은 위치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도 다르다(6호선: 효빈교통공사 / 빈효선: 한국철도공사). 이로 인해 환승 게이트 통과 시 별도 운임 1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. 시민들 사이에서는 "같은 역에서 갈아타는데 왜 돈을 더 내냐"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, 두 노선이 제공하는 압도적인 이동 편의성(강남-강북 연결, 시외 연결) 덕분에 '통행세'라 생각하고 감수하는 분위기다. 코레일 파업 시에는 지상의 빈효선만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등 운영 상황의 차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.
- 동구 주민들의 탈출구이자 '덕질' 베이스캠프: 역이 위치한 덕현동은 거대한 아파트 숲을 이루는 주거 밀집 지역이다. 전덕역 개통 전에는 버스에 의존해야 했으나, 이제는 6호선을 타고 북구(고 송/중수)나 청엽구로 마실을 가거나, 빈효선을 타고 효빈항이나 타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

있게 되어 동구 교통 혁명의 중심지가 되었다. 특히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 환경이 쾌적해, 인근 성지(고송동 등)로 이동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팬들의 거주지로도 인기가 높다.